

전국 시설이용 재가 장애인의 구강건강관리와 구강진료기관이용 행태

전현선^{1),5)}, 김영남²⁾, 최연희³⁾, 정원균⁴⁾, 김백일¹⁾, 권호근¹⁾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치과학 교실¹⁾, 보건복지부 구강보건사업지원단²⁾,
경북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치과학교실³⁾,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치위생학과⁴⁾,
BK21 연세치의과학 사업단⁵⁾

색인: 구강건강관리, 구강진료기관이용행태, 시설이용 장애인

1. 서 론

장애인들의 복지 욕구 가운데 의료 욕구가 매우 중요하게 파악되고 있으며¹⁾, 이 중에서도 구강건강문제의 해결은 필수적인 문제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건강한 구강 상태를 유지하고 증진시키는 것이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의학 분야의 전신건강관리와 재활, 취업의 기준에서 볼 때 장애인의 구강건강문제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되는 경향이 많다²⁾. 또한 구강건강상태가 양호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치료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이 있으며, 특히 응급 치료를 요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 지적되고 있다. 장애인의 구강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가정에서 행해지는 구강건강관리와 구강질환의 치료와 예방, 검진을 위한 구강진료기관 이용은 구강건강을 관리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전국의 특수학교와 복지관을 이용하는 재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유형별 구강관리행태 및 구강진료기관이용행태를 파악하여 구강건강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2004년도 보건복지부에 등록되어 있는 국내 거주 장애인 중 18~64세를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장애유형에 따른 분류는 구강보건문제와 큰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

는 일부 장애유형을 제외하여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다운증후군, 정신지체, 시각장애, 청각장애를 선정하였다. 이중 장애유형을 크게 3군으로 나누어 신체장애인군, 정신지체장애인군, 감각장애인군으로 분류하였다. 전체 조사대상자는 619명이었으나, 분석에 사용된 대상자는 총 612명이었다.

2.2. 조사방법 및 조사내용

조사 기간은 2004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시행되었으며, 조사팀은 구강검사요원 1인, 구강검사기록요원 1인, 면접조사요원 1인을 기본구성으로 하였다. 구강면접조사기록부에서 조사된 변수는 인구사회학적 변수, 구강건강관리 행태 관련 변수(잇솔질 행태, 잇솔질 횟수, 구강건강관리용품), 구강진료기관이용 행태 관련 변수(지난 1년간 구강진료기관 이용경험, 이용한 구강진료기관 형태, 구강진료기관을 방문한 이유, 구강진료기관을 방문하지 않은 원인)를 조사하였다.

3. 연구결과

장애유형별 잇솔질 의존도는 감각장애인군(90.9%), 정신지체군(88.2%), 신체장애인군(68.5%) 순으로 장애인이 스스로 잇솔질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장애유형별 평균 잇솔질 횟수는 감각장애인군(2.38회), 정신지체군(2.33회), 신체장애인군(2.02회)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 보조적 구강환경관리용품 사용은 모든 장애유형의 장애인의 50~59% 가량이 사용하지 않았고, 사용한다고 응답한 사람들 중에서는 치간잇솔과 양치액, 전동잇솔의 사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 지난 1년간 구강진료기관 이용경험은 장애인이 50~53.8%로 나타났으며, 이들 중 치과의를원을 이용한 비율은 신체장애인군(58.9%), 정신지체군(58.6%), 감각장애인군(39.6%) 순으로 나타났고, 구강진료기관 방문 이유에 대해 신체장애인 장애인의 53.3%가 증상을 치료하기위해서 내원하였고, 정신지체군과 감각장애인 장애인의 35.4%, 47.4%가 정기 검진이나 예방 및 스케일링을 받기위해 구강진료기관을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강진료기관을 방문하지 않는 이유는 모든 장애유형의 장애인 중 50%가 건강하기 때문에 구강진료기관방문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고, '구강진료기관방문이 어려워서'가 그 다음이었다.

4. 결론

본 조사 결과 시설을 이용하는 재가 장애인들의 평균 잇솔질 횟수는 비장애인과 비슷하지만 신체장애군은 수기의 문제로 잇솔질 의존도와 횟수에 제한을 받고 있어 장애인을 위한 보조적 구강환경관리용품이 개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구강진료기관의 이용경험의 경우 비장애인에 비해서 높았으나 치과의원을 주로 이용하는 비장애인과는 달리 장애인들의 경우 연계된 구강진료기관이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보다 이용이 편리한 치과의원의 연계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 복지팀.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보고.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 복지, 2001.
2. 보건복지부. 전국 장애인 구강보건 실태조사 연구. 서울:보건복지부, 2005.
3. Pool D. Dental care for the handicapped. Br Dent J 1981;151:267-270.